# **Chapter 5 Data science and tidyverse**

tidyverse (https://www.tidyverse.org/)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R 기반의 독창적인 패키지들의 모음입니다. Rstudio의 핵심 전문가인 해들리위컴이 (Hadley Wickham) 중심이 되어 만들어 졌으며 기존의 툴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

### R packages for data scienc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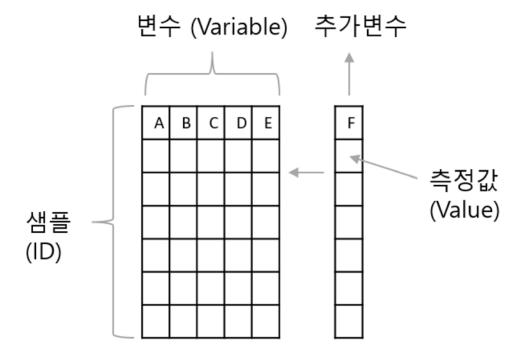
The tidyverse is an opinionated **collection of R packages** designed for data science. All packages share an underlying design philosophy, grammar, and data structures.

Install the complete tidyverse with:

install.packages("tidyverse")

## 5.1 Tidy data structure

데이터의 변수와 값을 구분하는 일은 적절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. 특히 복잡하고 사이즈가 큰 데이터일 경우는 더욱 중요할 수 있으나 경험에 의존해서 구분을 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. Tidy data는 이러한 변수와 값의 명확한 구분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 구조중 하나 입니다 (Hadley Wickham. Tidy data. *The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*, vol. 59, 2014). Long형 데이터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. 참고로 Wide형 데이터의 경우 샘플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row에 쌓이고 새로운 변수는 column에 쌓이는 방식으로 데이터가 확장되는 형태 입니다. 엑셀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형식으로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.



Long형 데이터의 경우 ID, variable, value 세가지 변수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. 위 wide형 데이터 경우를 보면 ID, variable, 그리고 value 이 세가지 요인이 주요 구성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. Long형으로 변환할 경우 샘플을 참조할 수 있는 어떤 변수 (variable)도 ID가 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변수가 ID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. 참고로 ID를 지정할 경우 해당 ID는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값들을 갖는 변수를 사용해야 식별자로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. Long형을 사용할 경우 데이터의 변수가 늘어나도 행의 수만 늘어나므로 코딩의 일관성과 변수들의 그룹을 만들어서 분석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. 아래는 새로운 변수 F가 추가될 때 long 형 데이터에 데이터가 추가되는 경우를 나타낸 그림 입니다.

ID	variable	values			
1	В				
1	С				
2	В				
2	С				
+					
1	F				
2	F				
3	F				
4	F				

추가변수

일반적으로 얻어지는 데이터의 형태는 wide형이며 이를 Long형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tidyverse 패키지에 속한 tidyr 패키지의 pivot\_longer 와 pivot\_wider 를 사용합니다. 또한 reshape2 패키지의 melt 함수와 그 반대의 경우 dcast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본 강의에서는 tidyr 패키지를 사용합니다. wide형 데이터를 long형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melting 이라고 합니다.

country	1999	2000		country	year	case
Α	0.7K	2K	-	Α	1999	0.7K
В	37K	80K		В	1999	37K
С	212K	213K		C	1999	212K
				Α	2000	2K
				В	2000	80K
				C	2000	213K

name value

airquality 데이터는 전형적인 wide형 데이터로 특정 날짜에 네 개의 변수에 해당하는 값들을 측정했습니다. 이 데이터를 long형으로 바꿀 경우 ID를 날짜로 하면 데이터들을 식별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날짜는 변수가 Month와 Day두 개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두 변수를 식별 변수로 (ID로) 사용 합니다. 확인

을 위해 상위 5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형 변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

```
myair <- airquality[1:5,]
myair_mlt <- pivot_longer(myair, c("Ozone", "Solar.R", "Wind", "Temp"))
myair_mlt
myair_mlt2 <- pivot_longer(myair, c(Ozone, Solar.R, Wind, Temp))
myair_mlt2
myair_mlt3 <- pivot_longer(myair, !c(Month, Day))
myair_mlt3</pre>
```

ggplot 을 이용한 그래프 작성에는 위와 같은 long형 데이터가 주로 사용됩니다. R을 이용한 데이터 가시화는 dplyr 패키지로 wide형 데이터를 편집하고 pivot\_longer 함수로 long형 데이터로 변환 후 ggplot 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수행합니다. 두 데이터 포멧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https://www.theanalysisfactor.com/wide-and-long-data/

## 5.2 Analysis Goal (ALL dataset)

- 성별별로 각 유전자들의 평균 발현양 구하기
- 성별별로 각 유전자들의 최고 발현값 구하기
- 성별별로 각 유전자들의 발현값 차이 검정 하기

```
library(ALL)
library(hgu95av2.db)
data(ALL)
## data
ex_data <- exprs(ALL)[1:100,]</pre>
ph_data <- pData(ALL)</pre>
feature_names <- featureNames(ALL)[1:100]</pre>
gene_names <- unlist(as.list(hgu95av2SYMBOL[feature_names]))</pre>
## remove missing | average the same genes
sum(is.na(ex_data))
sum(is.na(gene_names))
idx <- which(is.na(gene_names) | duplicated(gene_names))</pre>
ex_data <- ex_data[-idx,]</pre>
rownames(ex_data) <- gene_names[-idx]</pre>
head(ex data)
head(ph_data)
```

• 성별별로 각 유전자들의 평균 발현양 구하기

```
###
ex_data_male <- ex_data[,ph_data$sex=="M"]</pre>
ex_data_female <- ex_data[,ph_data$sex=="F"]</pre>
male_mean <- rowMeans(ex_data_male)</pre>
female_mean <- rowMeans(ex_data_female)</pre>
exp_mean <- data.frame(male_mean, female_mean)</pre>
rownames(exp_mean) <- rownames(ex_data_male)</pre>
barplot(t(exp_mean), beside=T)
###
diff <- male_mean-female_mean</pre>
plot(diff)
plot(male_mean, female_mean)
abline(a=0, b=1)
• 성별별로 각 유전자들의 최고 발현값 구하기
ex_data_male <- ex_data[,ph_data$sex=="M"]</pre>
ex_data_female <- ex_data[,ph_data$sex=="F"]</pre>
## male max
male_val <- rep(0, nrow(ex_data_male))</pre>
for(i in 1:nrow(ex_data_male)){
  male_val[i] <- max(ex_data_male[i,])</pre>
names(male_val) <- rownames(ex_data_male)</pre>
## female max
female_val <- rep(0, nrow(ex_data_female))</pre>
for(i in 1:nrow(ex_data_female)){
  female_val[i] <- max(ex_data_female[i,])</pre>
names(female_val) <- rownames(ex_data_female)</pre>
exp_val <- data.frame(male_val, female_val)</pre>
rownames(exp_val) <- rownames(ex_data)</pre>
barplot(t(exp_mean), beside=T)
```

• 성별별로 각 유전자들의 발현값 차이 검정 하기

## 5.3 Apply functions

apply 는 데이터를 변형하기 위한 함수라기 보다는 데이터를 다룰 때 각 원소별, 그룹별, row, 또는 column 별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함수입니다. apply 계열의 함수를 적절히 사용하면 효율성이나 편리성 뿐만 아니라 코드의 간결성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. apply 의 두 번째 인자인 margin의 값으로 (?apply 참고) 여기서는 2 가 사용되었으며 margin 값이 1인지 2인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작동을 합니다.

			월 (2)	
	gestation	wt	dwt	
행 (1)	284	120	110	
	282	113	148	
	279	128	NA	
	NA	123	197	
	282	108	NA	7
	286	136	130	

Q (2)

mean 외에도 다양한 함수들이 사용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임의의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. 아래 코드에서는 function(x)...로 바로 함수의 정의를 넣어서 사용했으나 그 아래 mysd 함수와 같이미리 함수 하나를 만들고 난 후 함수 이름을 이용해서 apply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

```
apply(df, 2, sd, na.rm=T)
apply(df, 2, function(x){
   xmean <- mean(x, na.rm=T)
   return(xmean)
})</pre>
```

apply 함수 외에도 sapply, lapply, mapply 등의 다양한 apply 계열 함수가 쓰일 수 있습니다. 먼저 lapply 는 matrix 형태 데이터가 아닌 list 데이터에 사용되어 각 list 원소별로 주어진 기능을 반복해서 수행하며 sapply 는 lapply 와 유사하나 벡터, 리스트, 데이터프레임 등에 함수를 적용할 수 있고 그결과를 벡터 또는 행렬로 반환합니다.

• 성별별로 각 유전자들의 최고 발현값 구하기

```
##
ex_data_male <- ex_data[,ph_data$sex=="M"]
ex_data_female <- ex_data[,ph_data$sex=="F"]

male_val <- apply(ex_data_male, 1, max)
female_val <- apply(ex_data_female, 1, max)

exp_val <- data.frame(male_val, female_val)
rownames(exp_val) <- rownames(ex_data)
barplot(t(exp_mean), beside=T)</pre>
```

• 성별별로 각 유전자들의 발현값 차이 검정 하기

```
##
ex_data_male <- ex_data[,ph_data$sex=="M"]</pre>
ex_data_female <- ex_data[,ph_data$sex=="F"]</pre>
x <- ex_data_male[1,]</pre>
y <- ex_data_female[1,]</pre>
fit <- t.test(x, y)</pre>
##
mytest <- function(z){</pre>
  x < -z[1:86]
  y <- z[87:128] ## no good coding
  fit <- t.test(x, y)</pre>
  z <- c(tstat=fit$statistic, pval=fit$p.value)</pre>
newd \leftarrow c(x,y)
mytest(newd)
new_data <- cbind(ex_data_male, ex_data_female)</pre>
test_results <- apply(new_data, 1, mytest)</pre>
test_results <- t(test_results)</pre>
test_results <- data.frame(test_results)</pre>
barplot(test_results$tstat.t, col="green")
mycol <- rep("green", length(test_results$pval))</pre>
barplot(test_results$tstat.t, col=mycol)
mycol[test_results$pval<0.1] <- "red"</pre>
barplot(test_results$tstat.t, col=mycol)
ph_data$BT
```

## 5.4 Data manipulation with dplyr

dplyr (https://dplyr.tidyverse.org/) 은 ggplot2 을 개발한 해들리위컴이 (Hadley Wickham) 중심이 되어 만들어 졌으며 ggplot2 와 함께 tidyverse 의 (https://www.tidyverse.org/) 핵심 패키지 입니다. dplyr 은 데이터를 다루는 크기나 분석의 속도, 편의성을 향상시켜 새롭게 만들어놓은 패키지 입니다. 기존 apply 와 같은 행렬 연산 기능과 subset , split , group 와 같은 행렬 편집 기능을 더하여 만들어진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dplyr 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plyr 패키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A set of tools for a common set of problems: you need to split up a big data structure into homogeneous pieces, apply a function to each piece and then combine all the results back together. 즉 split-apply-combine 세 가지 동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툴 입니다. R이 다른 언어에 비해 데이터 분석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로 split, apply 등의 행렬 연산 함수가 발달한 것을 내세우는데 dplyr 은 이들을 보다 더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입니다.

### 5.4.1 dplyr - pipe operator

dplyr 의 사용을 위해서는 여러 명령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주는 %>% 파이프 오퍼레이터의 이해가 필요합니다. 파이프 오퍼레이터의 작동법은 간단히 %>% 의 왼쪽 코드의 결과를 출력으로 받아 오른쪽 코드의 입력 (첫번째 파라미터의 값)으로 받아들이는 작동을 합니다 (단축키: Shift+Ctrl+m). 다음 예에서 보면 sin(pi) 와 같은 함수의 일반적인 사용법 대신 pi %>% sin 처럼 사용해도 똑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. cos(sin(pi)) 와 같이 여러 합수를 중첩하여 사용할 경우와 비교해서 코드의 가독성이나 효율 측면에서 크게 향상된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.

```
library(dplyr)
pi %>% sin
sin(pi)
pi %>% sin %>% cos
cos(sin(pi))
```

특히 %>% 는 이후 설명할 dplyr 의 group\_by, split, filter, summary 등의 행렬 편집/연산 함수를 빈번히 다양한 조합으로 쓰게되는 상황에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.

```
x %>% paste("a", sep="")
```

pipe operator의 왼쪽 구문의 결과가 오른쪽 구문의 첫 번째 파라미터의 입력 값으로 처리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. 즉, 함수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가 여러개일 경우가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%% 의 왼쪽 구문의 출력 값은 오른쪽 구문 (함수)의 첫 번째 인자의 입력값으로 들어가는 것 입니다. 이는 다음 예들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. 먼저 paste 함수는 그 파라미터로 , 로 구분되는 여러개의 입력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다음 코드는 x 가 paste 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 들어가게 되어 "1a", "2a", "3a", "4a", "5a" 로 a 앞에 x 값들이 붙어서 출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```
x <- 1:5
x %>% paste("a", sep="")
```

특정 데이터셋의 컬럼별 평균을 구하고 각 평균의 합을 구할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. R에서는 colMeans 라는 특별한 함수를 제공하여 컬럼별로 평균을 계산해 줍니다. 그 후 sum 함수를 사용하여 최종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코드를 %>% 오퍼레이터를 사용한 경우의 코드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.

```
x <- data.frame(x=c(1:100), y=c(201:300))
sum(colMeans(x))

x <- data.frame(x=c(1:100), y=c(201:300))
x %>% colMeans %>% sum
```

그럼 만약 두 번째 파라미터에 입력으로 왼쪽 구문의 출력을 받아들이고 싶을 경우는 place holer . 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 round 함수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설정할 있 이으며 digits 라는 두 번째 파라미터에 값을 pipe operator로 넘겨주고 싶을 경우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.

```
6 %>% round(pi, digits=.)
round(pi, digits=6)
```

### 5.4.2 dplyr - Important functions

이제 본격적으로 dplyr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. dplyr 을 구성하는 중요한 함수는 다음 6가지가 있습니다.

- select() select columns
- filter() filter rows
- arrange() re-order or arrange rows
- mutate() create new columns
- summarise() summarise values
- group\_by() allows for group operations in the "split-apply-combine" concept
- join() Merge two data.frames ( left\_join() , 'right\_join() , 'inner\_join() , 'full\_join()')

이 함수들은 %>% 와 함께 쓰이면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. summarise 함수는 특정 값들의 통계 값을 계산해 주는 함수이며 그 외 5개 함수들은 행렬 편집을 위한 함수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간단한 예제를 수행하면서 각각의 기능을 살펴보고 왜 dplyr 이 널리 사용되고 그 장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
iris 데이터는 세 종류의 iris 품종에 대한 꽃잎과 꽃받침의 length와 with를 측정해 놓은 데이터 입니다. head 와 str 명령어를 %>% 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살펴 봅니다.

```
iris %>% head(10)
iris %>% str
```

#### 5.4.2.1 filter

먼저 아래와 같이 filter 함수를 사용해서 원하는 조건의 데이터 (샘플)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.

```
library(dplyr)

head(iris)
iris %>% filter(Species=="setosa")
iris %>% filter(Species=="setosa" | Species=="versicolor")
iris %>% filter(Species=="setosa" & Species=="versicolor")
iris %>%
  filter(Species=="setosa" | Species=="versicolor") %>%
  dim
```

filter 의 , 로 구분되는 매개변수는 and 로직으로 묶인 조건입니다. 지난 강좌에서 보셨듯 R에서 and 는 &, or 는 |, 그리고 not은 ! 으로 사용하면 되며 filter 에서 , 로 구분된 조건은 and 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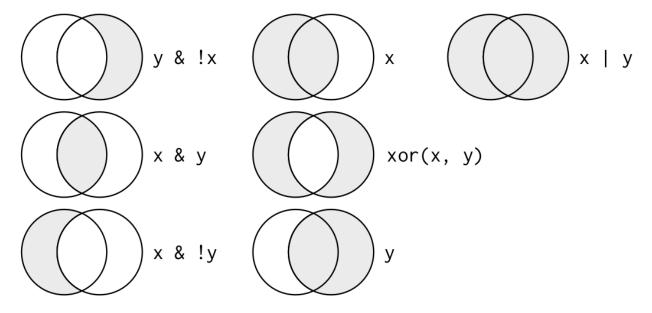


Image from (https://r4ds.had.co.nz/)

#### 5.4.2.2 arrange

arrange() 는 지정된 변수를 기준으로 값의 크기순서로 샘플들의 배열 순서 즉, row의 순서를 바꾸는 기능을 수행합니다. 기본으로 크기가 커지는 순서로 정렬이 진행되며 작아지는 순서를 원할 경우 desc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```
iris %>% arrange(Sepal.Length)
iris %>% arrange(desc(Sepal.Length))
iris %>% arrange(Sepal.Length, Sepal.Width)
```

#### 5.4.2.3 select

select() 는 주어진 데이터셋으로부터 관심있는 변수를 (column) 선택하여 보여줍니다. 다음 helper 함수들은 select 함수와 같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.

```
head(iris)
iris %>% select(Species, everything())
iris %>% select(-Species)
iris %>% select(starts_with('S'))
iris %>% select(obs = starts_with('S'))
```

아래는 matches 함수를 사용한 방법 입니다. 좀 더 복잡한 패턴을 적용하여 변수들을 선택할 수 있으며 grep 함수를 사용할 경우도 정규식 패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아래 (.)\\1 은 하나의 문자 . 가 (어떤 문자든) 한 번 더 \\1 사용된 변수 이름을 말하며 이는 aavar 의 aa 밖에 없으므로 aavar 가 선택됩니다. grep 에서 ^ 표시는 맨 처음을 나타내므로 ^s 는 S로 시작하는 문자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grep("^S", colnames(iris)) 의 경우 컬럼 이름 중 S로 시작하는 이름은 True로 그렇지 않으면 False 값을 리턴합니다.

```
iris2 <- rename(iris, aavar = Petal.Length)
select(iris2, matches("(.)\\1"))
tmp <-iris[,3:5]
colnames(iris)[grep("^S", colnames(iris))]
iris[,grep("^S", colnames(iris))]
tmp</pre>
```

#### 5.4.2.4 mutate

mutate() 함수는 새로운 변수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앞에서 배웠던 within() 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아래와 같이 mutate 함수는 sepal\_ratio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어서 기존 iris 데이터들과 함께 반환해 줍니다.

```
iris2 <- iris %>% mutate(sepal_ratio = Sepal.Length/Sepal.Width)
head(iris2)
```

#### **5.4.2.5** summarise

summarise() 는 data.frame 내 특정 변수의 값들로 하나의 요약값/대푯값을 만들어 줍니다. summarise 함수는 단독으로 쓰이기 보다는 group\_by() 기능과 병행해서 쓰이는 경우에 유용하게 쓰입니다.

summarise\_all() 함수를 사용하면 모든 변수에 대해서 지정된 함수를 실행합니다.

```
iris %>% summarise(mean(Sepal.Length), m=mean(Sepal.Width))
iris %>% group_by(Species) %>% summarise(mean(Sepal.Width))
iris %>% group_by(Species) %>% summarise_all(mean)
iris %>% group_by(Species) %>% summarise_all(sd)
```

#### 5.4.2.6 join

join 함수는 데이터를 합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dplyr 패키지에 속한 함수 입니다. 네 가지 종류의 함수가 있으며 (left\_join(), 'right\_join(), 'inner\_join(), 'full\_join())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이름의 변수를 (key) 이용해서 공통되는 샘플끼리 자동으로 병합해 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. by`에서 지정해준 파라메터의 값을 기준으로 기능이 수행 됩니다.

```
df1 <- data.frame(id=c(1,2,3,4,5,6), age=c(30, 41, 33, 56, 20, 17))
df2 <- data.frame(id=c(4,5,6,7,8,9), gender=c("f", "f", "m", "m", "f", "m"))
inner_join(df1, df2, by="id")
left_join(df1, df2, "id")
right_join(df1, df2, "id")
full_join(df1, df2, "id")</pre>
```

### 5.4.3 code comparison

이제 split, apply, combine 을 활용하여 평균을 구하는 코드와 dplyr 패키지를 사용하여 만든 코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split 은 factor 형 변수인 Species를 기준으로 iris 데이터를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며 lapply 는 list 형 데이터인 iris\_split 을 각 리스트의 각각의 원소들에 대해서 임의의 함 수 function(x)... 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. 마지막 data.frame 으로 최종 경로를 combine 합니다.

```
iris_split <- split(iris, iris$Species)
iris_means <- lapply(iris_split, function(x){colMeans(x[,1:4])})
iris_means_df <- data.frame(iris_means)
iris_means_df</pre>
```

위 코드를 한 줄로 사용하여 최종 iris\_means\_df 데이터를 를 구한다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. 한눈에 코드가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중첩해서 함수를 사용하는 습관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권장하지 않습니다.

아래는 dplyr 패키지를 사용한 코드 입니다.

```
iris_means_df2 <- iris %>%
  group_by(Species) %>%
  summarise_all(mean)
```

위에서 보듯 dplyr 패키지를 사용할 경우 그 결과는 같으나 코드의 가독성과 효율성면에서 장점을 보여줍니다. iris 데이터를 받아서 Species에 명시된 그룹으로 나누고 mean 함수를 모든 컬럼에 대해서 사용하라는 의미 입니다.

ggplot 을 이용하여 각 평균에 대한 barplot 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ggplot 에서는 data만 명시해 주고 geom\_bar 에 aes 와 stat 을 모두 사용한 것이 다릅니다. ggplot 구문에서 지정해주는 aes 등의 옵션은 하위 geom\_xxx 레이어들에 모두 적용이 되고 각 geom\_xxx 레이어에서 지정해주는 aes 는 해당 레이어에서만 효과를 나타냅니다.

```
library(ggplot2)
ggplot(iris_means_df2) +
  geom_bar(aes(x=Species, y=Sepal.Length), stat="identity")
```

dplyr 패키지의 기능을 ggplot2 패키지의 기능들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보통은 앞서와 같이 결과를 특정 변수에 저장한 후 도표 등을 그리지만 다음과 같이 %>% 를 사용하여 plot 까지 함께 볼 수도 있습니다.

```
iris %>%
  group_by(Species) %>%
  summarise_all(mean) %>%
  ggplot() +
  geom_bar(aes(x=Species, y=Sepal.Length), stat="identity")
```

### 5.4.4 dplyr example iris

dplyr 패키지를 이용해서 iris 품종별로 꽃과 꽃받침의 넓이와 길이의 평균을 비교하는 bar그래프를 (error bar 포함) 그려보겠습니다. 이를 위해서는 먼저 iris 데이터를 품종별로 grouping 할 필요가 있습니다.

```
iris2 <- iris %>% group_by(Species)
str(iris2)
```

이제 그룹별로 꽃과 꽃받침 길이와 넓이의 평균을 일괄적으로 구합니다.

```
iris3 <- iris2 %>%
   summarize_all(mean)
iris3
```

이제 이 값들을 이용해서 barplot으로 그려봅니다. 그래프의 x축은 species별 Length나 Width mean 값으로 하고 y축은 각 해당하는 값들로 `stat="identity"'로 넣어주면 될 듯 합니다. ggplot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long형 데이터로 전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```
iris4 <- iris3 %>%
  melt(id.var="Species")
iris4
```

위 데이터로 barplot을 그릴 수 있습니다.

```
ggplot(iris4, aes(x=variable, y=value, fill=Species)) +
geom_bar(stat="identity", position="dodge")
```

위 일련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%>% 로 연속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.

```
iris_mean <- iris %>%
  group_by(Species) %>%
  summarize_all(mean) %>%
  melt(id.var="Species")

ggplot(iris2, aes(x=variable, y=value, fill=Species)) +
  geom_bar(stat="identity", position="dodge")
```

error bar 구현을 위해서는 각 그룹별 표준편차 sd 값이 필요합니다. 동일한 방법으로 sd 데이터를 구합니다.

```
iris_sd <- iris %>%
  group_by(Species) %>%
  summarize_all(sd) %>%
  melt(id.var="Species")
```

이제 두 데이터를 병합 하겠습니다. 두 데이터를 병합할 때 key가 되는 변수가 필요하며 기본으로 동일한 이름을 가진 변수를 사용하지만 이 예제에서는 모든 변수가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by라는 옵션으로 key 변수를 지정해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두 개 이상의 변수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.

```
iris_new <- inner_join(iris_mean, iris_sd, by=c("Species", "variable"))
head(iris_mean)
head(iris_sd)
head(iris_new)</pre>
```

위와 같이 각 해당하는 샘플의 mean과 sd 값을 직접 비교해 보면 적절한 value 값들이 병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단, value 라는 변수 이름이 두 테이블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어 병합될 경우 value.x, value.y와 같이 자동으로 변수 이름이 다르게 할당 됩니다. 이제 위 데이터를 이용해서 barplot을 그려 보겠습니다.

```
ggplot(iris_new, aes(x=variable, y=value.x, fill=Species))+
  geom_bar(stat="identity", position="dodge")
```

여기에 error bar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geom\_errorbar 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position\_dodge(0.9)는 error bar의 위치를 맞추기 위한 옵션으로 width를 사용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position\_dodge(0.9)를 사용한다고 외우는 것도 괜찮습니다.

# © © © ©

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비영리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